



보살님, 진짜 '보살'의 뜻을 아십니까?



수월관음도

‘보살’ 불자들이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단어 중의 하나다. ‘위로는 진리(깨달음)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 한다’는 이념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잘 알고 있다.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은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존엄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파악하고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한 커다란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종교적 측면을 벗어나서도 복지사회에서는 이 보살 사상이 매우 선진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육바라밀의 실천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념은 인간을 포함한 일체중생의 행복을 건인하는데 더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은 보살사상의 궁극이다. 보살은 발심과 서원과 실천을 생명으로 하고 실천의 구체적인 지표가 바로 육바라밀인 것이다.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편집한 이 책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유산 대승불교의 보살’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다. 보살이라는 단어 앞에 ‘가장 위대한 유산’ ‘대승불교’를 굳이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살 사상은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함께 성불해야 할 공동체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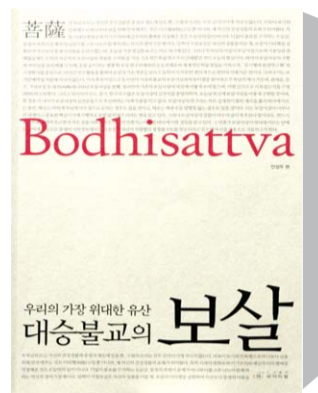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살을 세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한다. 하나는 성불하기 전의 부처님 다시 말해 역사적 존재로서의 석가모니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타카> 등의 경전에서 성불 이전의 부처님을 보살로 칭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륵보살이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등과 같은 천상적 보살이다. 이 같은 보살의 개념은 초기불교의 자력적 요소에 비해 타력적 요소를 받아들인 대승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는 붓다가 되고자 원을 세운 중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유마경>의 유마거사가 대표적이다. 현실과 유리된 세계에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유형의 보살인 셈이다.

보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보살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책의 집필 동기다. 서울 금강산원의 해가스님이 보살정신의 구현을 발원하고 함께 뜻을 모은 6명의 학자들이 각자 파트를 나눠 집필했다. 책의 집필과 출판 동기 역시 보살정신을 담고 있는 것.

1부에서는 이자랑 박사가 ‘자타카 및 불전문학에 나타난 보살사상’을

정리했고 안성두 박사는 ‘대승불교의 이념과 보살사상의 특징’을 이영진 박사가 ‘초기 대승 경전에 나타난 보살의 이념’을 차상엽 박사가 ‘중기 대승논서에 나타난 보살 사상의 특징’을 각각 집필했다. 보살 사상의 내용을 주로 다룬 2부에는 김성철 박사의 ‘보살의 발심과 서원’ 원과 스님의 ‘6바라밀의 실천’ 안성두박사의 ‘보살윤리의 성격’이 차례로 실렸다.

임연태 기자mian1@hanmail.net



대승불교의 보살
안성두 편집 | 씨아이알 펴냄
1만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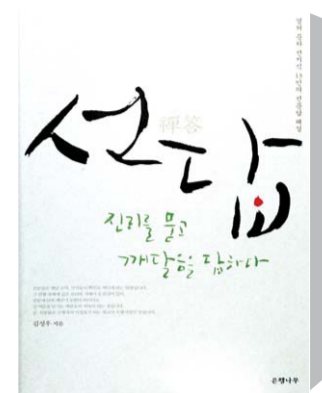
선의 산맥을 천천히 올라보자

‘언어도단(言語道斷)’ 선(禪)에서 언어는 장애물이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말을 해 버리면 이미 말에 집착하고 분별하므로 말길이 끊어진 곳에 진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말이 없으면 진리는 무엇으로 전하나?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질을 하고 눈을 꿈쩍거리려는 것으로 법을 전하는 게 선가의 기풍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이고 자리를 나눠 앉고 관 밖으로 발을 내민 것도 언어 이전의 언어를 전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런 상징은 어디까지나 전하고 받는 사람의 근기가 합일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닭을 본 사람에게 ‘꼬끼오’ 소리만 내도 닭을 인식하지만, 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닭의 그림을 그려 주어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문답은 언어로 언어를 잘라 내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획득하는 전광석화 같은 구도행각이다.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거나 가르침을 전하는 입장이거나 는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문답 밖의 문답’에서 ‘내 안의 진리’를 챙겨야 하는 철저함이 그 생명이다.

수행 전문 작가로 활동해 온 김성우(현대불교 취재부장)씨가 근대 한국 선불교의 흥흥조경허 선사 이후 현재의 해동선원 조실 성수스님에 이르기까지 13명의 선사들이 남긴 선문답을 풀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현대불교 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을 보완했다.



선문답 진리를 묻고 깨달음을 답하다
김성우 지음
은행나무 펴냄 | 1만 2000원

선 수행을 깊이 체험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왜곡됨이 없는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선사들이 남긴 선문답을 통해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 진리를 획득하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도도한 선의 산맥을 저자의 차분한 해설과 함께 오를 수 있다.

임연태 기자

행복하고 싶다면 매순간 깨어있으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성취해야 할 진정한 목표다.”

현재 서양에까지 널리 영향을 펼치고 있는 스님을 꼽는다면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베트남 출신 티벳 스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현자(賢者)가 있었다. 태국 밀림 속에서 평생 전법을 하며 살아간 아잔 차 스님(1918~1992)이다. <아잔 차의 마음>은 구도와 전법, 철저한 무소유 정신을 남기고 간 아잔 차 스님 그 자신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매 순간 ‘깨어있으라’며 평화로운 삶을 당부해 온 스님의 법문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을 일갈한다.

이 책에서는 아잔 차 스님이 즉흥적인 모임에서 법문한 내용을 주로 엮어 놓았다. 즉, 생생한 육성 그대로라는 것이다. 아잔 차 스님은 미리 법문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법이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잔 차 스님의 가르침은 직설적이고 정직하고 예리하다. 때로는 유머를 섞어 이야기 하지만 그 유머는 ‘법(法)’을 깨닫고 있다. 스님의 육성을 따르다 보면 ‘마음 훈련’에 돌입하게 되고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알게 되며, ‘육체를 개발하듯 마음을 개발하’게 된다.

아잔 차 스님은 생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입고 있던 옷 한



아잔 차의 마음

아잔 차 법문 · 이진 옮김 | 조화로운 숲 | 2만 3000원

벌이 전부였다. 하루의 스무 시간은 사람을 만나서 일로 보냈고 짚으로 엮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당도와 갖가지 말라리아 병을 앓았으며 먹을거리도 형편없었다. 소위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행복’을 찾았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서다.

내밀한 행복을 찾는 법은? “공부만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말과 행동, 생각에서 결실을 맺는다. 행동하지 않으면 수행은 끝나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공부해도 해탈의 참맛은 알 수 없다.”

아잔 차 스님은 “담뱃만 쏘는 사람이 되지 말라”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강진 기자

‘불교연구총서’ 첫 번째 도서

“반아바라밀과 무분별지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같다는 뜻으로 무분별지가 바로 반아바라밀이라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불교 사상은 궁극적 진리 인식을 통해 번뇌를 벗어나고 윤회와 고통의 세계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실천 목표(해탈지)가 있다. <섭대승론>은 해탈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 등을 가행무분별지·근분무분별지·후득무분별지 3종으로 나눠 설명한 논서다. 국내 유가학 전문가인 김성철 교수(동국대)가 3종 무분별지 특히 근분무분별지로 정립되는 과정을 추적·묘사함과 동시에 <섭대승론> ‘증상해학본’의 티벳역을 세친·무성의 주석과 함께 역주해 <섭대승론 증상해학본 연구>를 출간했다.

책은 해탈지의 초기 양상을 시작으로 근분무분별지의 형성과정, 삼성설의 변화와 무분별지 개념의 발전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또 <섭대승론>의 티벳역과 세친이 주석한 티벳역, 무성이 주석한 티벳역을 수록해 <섭대승론> 연구자에게 도움을 더했다.

현대 불교 문헌학 연구의 전형적인 틀을 갖추고 동시에 문헌학적 방법론의 성격과 한계에 도전하는 책은 김



섭대승론 증상해학본 연구

김성철 지음 | 씨아이알 펴냄 | 2만원

교수의 유가행파에 관한 해박한 식견에 한역·산스크리트 원전·티벳 원전 등 <섭대승론>에의 다양한 접근을 모두 담고 있다.

한편 이 책은 불교학 전공 소장학자들을 지원하는 불교학연구지원사업(이사장 법상의 소장 불교학자 지원사업인 ‘불교연구총서’ 첫 번째 도서로 발간됐다. (02)2275-8603

조동섭 기자

금주 캠페인입니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고즈넉한 산사를 채우는 풍경소리와 함께 자유로워지는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느낌표 스테이

Changing the way You see the world - templestay

http://www.templestay.com
tel. 02) 2011-1970-5